

해양수산부 규제리모델링제도 9월1일 시행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불필요한 규제신설 방지

해양수산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리모델링제'를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리모델링제는 각 실·국별로 평소 정비된 규제 포인트(건수)만큼 규제정비 풀(Pool)에 보관했다가 이후 법령 제·개정시 보관된 포인트내에서 규제의 신설·강화가 가능하도록 풀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설·강화하는 규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 포인트가 없을 경우 동일법령 또는 소관법령 범위 내에서 반드시 폐지·완화하는 규제를 발굴해야만 규제를 신설·강화할 수 있다.

해양부는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법률 제·개정시 신설·강화하는 규제를 대신하는 폐지·완화규제를 담은 '규제정비 이행계획서'를

수립토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규제심사를 보류하고, 이행계획서의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반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8월 현재 등록 규제수가 총 620건으로 정부 부처 중 네번째로 규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제정 등 지속적인 입법으로 규제증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무분별한 규제의 증가를 최소화하고, 해양수산 분야의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개발 해양안전 정보시스템 필리핀에 수출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 해양안전 정보시스템이 필리핀에 수출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의 첨단 정보기술(IT)로 구축·운영중인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 General Information Center on Maritime Safety & Security)'을 필리핀에 수출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양부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과 함께 지난 8월31일 필리핀 외교부와 해안경비대(Coast Guard)를 방문, GICOMS 도입에 관한 실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를 채택했다.

실무회의에서는 또 한·필리핀 양국은 GICOMS 도입에 관한 정부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연말까지 협정서를 체결하고, 양국 공동으로 GICOMS 수출에 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연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칼로스(Carlos) 필리핀해안경비대 사령관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해양오염사고의 방지와 외국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필리핀선원의 안전확보를 위해 GICOMS 도입이 절실하다며 한국정부가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GICOMS의 필리핀 수출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에 GICOMS 진출을 가속화 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